

# 무용예술분야 관람현황 실태분석

- 2020~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중심으로 -

하지원\* · 차수정\*\*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 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VI. 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문화예술은 여가 소비 상품 중 하나로 인식되며, 문화적 소비는 창조 경제 시대를 견인할 핵심분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주영애, 홍영운, 2016, p. 245). 이러한 문화적 소비를 통한 문화예술향유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제약 요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찰과 규명이 필요하다(김두이, 2021, p. 22).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문화소비의 욕구 확산 및 문화향유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하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소비측면에서 개인과 사회 차원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며(최순화, 2021, p. 174), 이전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취향에 의해 소비가 결정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류희진, 허식, 2018, p. 88). 이렇듯 공연예술 분야도 시장의 환경적·구조적 변화에 따라 관람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확장·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여순심, 2020, p. 33).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58.1%로 전년 대비 24.5%p 상승하였지만 세대와 소득수준에 따른 관람률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22). 또한,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은 '영화'가 52.2%로 가장 압도적이며, '무용'이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무용예술분야에서 관람객들이 향유하는 관람이란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가치차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 분야의 관객유치 및 활성화를 넘어 산업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정확한 관람수요요인을 파악하여 관람 결정 원인 및 관람을 통해 발생되는 가치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하지원, 2023, p. 107). 국내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민문화예술

\*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sjcha@sookmyung.ac.kr

활동조사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술(최유정, 이윤석, 2023, pp. 31-51), 체육(박주영, 오치욱, 김미연, 2022, pp. 71-93), 전시(이아영, 김범수, 2021, pp. 89-119) 등 각 분야의 연구는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용분야의 경우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활용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 관람소비 결정요인(박희영, 2022, pp. 187-199), 관객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조선하, 2006, pp. 449-459),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공연관람 인식(이용건, 주형철, 2020, pp. 365-374) 등의 선행 연구는 있었지만 일부영역에 한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 현황 및 만족 등 시간흐름의 따른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무용공연 관람자는 동일한 무용공연과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며, 각자가 인식하는 가치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무용공연 관람자가 인식하고 있는 무용공연 관람의 실태는 곧 관람자가 무용공연관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정한결, 2014). 이러한 관람자들의 관람 실태, 현황, 인식 등을 고려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 시계열분석이 일반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승욱, 한진욱, 2023, pp. 65-75). 최재일, 정용락(pp. 921-928)의 연구에 따르면 시계열 분석을 통한 관중 수 예측, 설민신, 박두용, 이미정(pp. 375-387)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관중 수 예측 등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전망을 보일 수 있다고 나타낸다. 또한 연구의 주제 및 영역을 포함한 연구내용과 방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문의 특성 및 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김미경, 2020, pp. 1-13). 이에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2020년~2022년까지 3개년을 분석함으로써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간흐름의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현황의 실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미관람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국민들이 보다 무용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무용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도를 중심으로 다뤘지만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공연예술의 현상이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공연예술 중 무용예술분야의 관람현황은 연도별 상관없이 대부분의 관람률이 하위권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국민들의 연도별 무용예술분야 관람 현황, 인식, 만족 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단순히 연도별 결과 값을 나열하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의 한계를 학술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고찰

다른 타 장르와는 달리 공연예술분야에 속하는 무용예술은 무대라는 장소를 매개로 생산과 소비에 중점이 있다. 그 중점 사이에 관람 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무용분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하게 된다. 관람객은 예술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공연의 본질적 속성에서 만족을 얻으며(신은주, 2011, p. 79), 공연을 통해 문화생활의 추구, 기분전환 등을 해소하게 된다(강기두, 이지희, 2001, p. 1163),

무용공연관람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특정한 혹은 전문인으로서만 국한되어있다는 한

계점이 존재한다. 무용예술분야의 소비형태 및 양상은 폐쇄적이며, 관람객 유치 및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무용예술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다(하지원, 2023, p. 106).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용예술분야도 그에 발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으며, 관람객들의 대상자 범위를 넓혀 어떠한 요인으로 관람을 하는지에 대한 관람현황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국민의 문화활동에 있어 향유의 인식 및 필요성이 부각되고, 높아짐에 따라 문화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수행 및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정책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 기준 시점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내 모든 가구 내 포함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한다. 표본 추출 방법에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지역별 및 동·읍면부별, 집락별로 세분화하여 층화한 후 1,000개 조사구를 통계추출하여 각 조사구에서 10가구를 추출하고, 표본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한 명을 조사한다. 총 10,000가구 조사이며, 조사 방법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TATI: TabletPC Aided Personal Interview)이다. 이처럼 1988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의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조사연혁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조사연혁

연도	내용
199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실시
1991	통계청 승인(제 132-21-03호), 「문화향수 실태조사」 실시
1993	승인번호(제)11301호 변경
2005	통계작성 변경승인 진행(조사주기 및 표본크기 조정: 3→2년/2,000명→3,000명)
2008	통계작성 변경승인진행(표본크기 조정:4,000명)
2010	통계작성 변경승인진행(표본크기 조정:5,000명)
2014	통계작성 변경승인진행(조사항목 변경, 조사범위 및 표본크기 확대:10,000명)
2016	통계청 승인번호 변경진행(제 113001호)
2019	통계작성 변경승인진행(조사주기 조정 및 조사명 변경: 1년/→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통계작성 변경 승인진행(조사항목 변경)

### III.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 현황, 인식, 만족 등에 관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3개년(2020년, 2021년, 2022년)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국민의 문화예술 수요 및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 문화

향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만 15세 이상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가구면접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무용예술분야 관람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가중치 적용 후 관람경험자의 경우 2020년 70명, 2021년 26명, 2022년 39명으로 나타났으며, 각 조사의 대상 기간은 발간 보고서에 명시된 연도에 따라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명명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경우, 표본설계의 모집단 설정, 시·도 층화, 다단계층화집락추출을 통한 표본추출로 진행된다. 이후 실사 과정을 거쳐 자료 입력 및 처리 단계, 가중치 산출,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을 통해 표본현황을 나타낸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분석자료 개요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자료 개요

구분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2022년 조사
조사 대상 기간	2019년 8월1일~ 2020년 7월31일	2020년 8월1일~ 2021년 7월31일	2021년 8월1일~ 2022년 7월31일

## 2. 분석변수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변수 및 세부 속성과 분석방법은 <표 3>과 같다. 무용예술행사 관람실태에는 직접관람 횟수와 직접관람 만족도가 해당되며, 직접관람 실태에는 관람지역, 관람 방법 과 관람 동행자, 관람 시간, 정보출처와 보완점, 선택기준, 관람 걸림돌이 해당 된다. 또한, 무용예술행사 관람 실태 및 직접관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관람경험자의 직접관람 횟수’, ‘직접관람 만족도’, ‘관람 지역’, ‘관람 방법’, ‘관람 동행자’, ‘관람시간’, ‘정보출처’, ‘보완점’, ‘선택기준’ 그리고 ‘관람걸림돌’을 분석하며, 무용예술분야 미관람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미관람경험자의 ‘관람 선택기준’, ‘관람걸림돌’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을 활용하였으며, 3개년(2020년, 2021년, 2022년)동안 각 변수 값들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진행하였다.

<표 3> 분석변수 및 방법

구분	대상자	세부항목	분석방법
무용예술분야 관람실태	관람경험자	직접관람 횟수	빈도분석
		직접관람 만족도	분산분석
		관람지역	카이제곱 검정
		관람 방법	
		관람 동행자	
		관람시간	
		정보출처	
		보완점	
	관람경험자 미관람경험자	선택기준	카이제곱 검정
		관람 걸림돌	

### 3.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은 남자 53명(39.3%), 여자 82명(60.7%)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 30명(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에서 30명(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도의 경우 서울 25명(18.5%), 경기 19명(14.1%), 부산 10명(7.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무용예술분야 직접관람 경험여부

무용예술분야의 직접관람 경험여부는 직접관람 횟수에 따라 ‘관람경험 있음’과 ‘관람경험 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람경험 있음’을 응답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1회, 2회, 3회,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연도별 무용예술분야 직접관람 경험 여부의 세부 관람 횟수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무용예술분야 관람 유무의 ‘관람경험 있음’의 응답의 경우 2020년 70명(0.7%), 2021년 26명(0.3%), 2022년 39명(0.4%)으로 나타났다.

### 2. 무용예술분야 직접관람 횟수

연도별 직접관람 횟수 중 ‘관람경험 있음’에 따른 직접관람 실태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람지역( $F=20.711, p<.001$ ), 관람방법( $F=32.978, p<.001$ ), 관람시간( $F=11.588, p<.001$ ), 정보출처( $F=18.045, p<.001$ ), 보완점( $F=12.966, p<.001$ ), 관람선택기준( $F=4.041, p<.05$ ), 관람걸림들( $F=3.927, p<.05$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람동행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에 대하여 세페의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람 지역, 관람방법, 보완점의 경우 2020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출처, 관람걸림들은 2022년, 2020년, 2021년 순으로 나타났다. 관람시간의 경우 2022년, 2020년, 2021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람선택기준은 2022년, 2021년, 2020년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3. 무용예술분야 관람지역

연도별로 관람지역의 비율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도별 관람지역에 대한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도별 관람지역에 대한 응답 중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로 응답한 비율은 점차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무용예술분야 관람방법

연도별로 관람방법의 비율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로 연도별 관람방법

에 대한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장권 구입’, ‘무료행사’, ‘기타’의 경우 2021년도 가 가장 높으며, ‘초대권으로 관람’의 경우 2020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무용예술분야 관람시간

연도별로 관람시간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범주 자료들 간의 비율을 비교 하였으며, 실시한 결과 연도별 관람시간에 대한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말 낮 시간’, ‘주말 저녁 시간’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감소하였지만 2022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무용예술분야 정보출처

연도별로 정보출처의 비율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정보출처에 대한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광고 등)’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잡지’, ‘해당 안내 책자’, ‘동호인 모임’의 경우 시간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무용예술분야 관람보완점

연도별로 보완점에 대한 비율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보완점에 대한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응답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승 후 2022년 동일한 수치가 나타났다.

〈표 4〉 무용예술분야 관람보완점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구분	평균				시계열 분석	$\chi^2$	p
	2020	2021	2022	전체			
보완점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8(11.4)	6(23.1)	9(23.1)	23(1.6)	40.589a	0.000
	관람비용을 낮추어야한다	11(15.7)	2(7.7)	4(10.3)	17(1.3)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한다	16(22.9)	3(11.5)	5(12.8)	24(3.6)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17(24.3)	8(30.8)	10(25.6)	35(4.2)		
	관련정보가 많아져야한다	12(17.1)	3(11.5)	6(15.4)	21(1.9)		
	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한다	5(7.1)	4(15.4)	5(12.8)	14(4.5)		
	기타	1(1.4)	0(0.0)	0(0.0)	1(16.7)		

## 8. 무용예술분야 직접관람 만족도

연도별 직접관람 횟수 중 ‘관람경험 있음’에 따라 만족도의 평균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직접관람 횟수에 따라 만족도 ( $F=1.958, p<.05$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하여 세페의 사후분석

(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대비 2021년과 2022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무용예술분야 관람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구분	평균				F	p	시계열 분석
	2020년 (n=70)	2021년 (n=26)	2022년 (n=39)	전체 (n=135)			
만족도	5.56	5.69	5.69	5.62	1,958*	0.050	2020<2021·2022

## 9. 무용예술분야 관람 선택기준

연도별 관람 선택기준 중 ‘관람경험 없음’에 따른 비율차이를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관람 선택기준에 대한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람 비용의 적절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가자(작가, 출연진)의 유명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접근성(가깝다)’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무용예술분야 관람 선택기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구분	평균				시계열 분석	x <sup>2</sup>	p	
	2020	2021	2022	전체				
선택 기준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	3,519 (35.1)	3,931 (39.2)	2,856 (28.3)	10,306 (34.2)	22<20<21	137.948 <sup>a</sup>	0.001
	관람 비용의 적절성	2,807 (28.0)	2,371 (23.6)	1,707 (16.9)	6,885 (22.8)	22<21<20		
	참가자(작가, 출연진)의 유명도	756 (7.5)	846 (8.4)	1,491 (14.8)	3,093 (10.3)	20<21<22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도	368 (3.7)	249 (2.5)	450 (4.5)	1,067 (3.5)	21<20<22		
	교통의 편의성	931 (9.3)	633 (6.3)	897 (8.9)	2,461 (8.2)	21<22<20		
	편의시설 구비 여부(놀이방 등)	166 (1.7)	139 (1.4)	176 (1.7)	481 (1.6)	21<20·22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150 (1.5)	158 (1.6)	363 (3.6)	671 (2.2)	20<21<22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198 (2.0)	192 (1.9)	652 (6.5)	1,042 (3.5)	21<20<22		
	접근성(가깝다)	1,119 (11.2)	1,482 (14.8)	1,495 (14.8)	4,096 (13.6)	20<21·22		
	기타	15 (0.1)	33 (0.3)	13 (0.1)	61 (0.2)	20·22<21		

## 10. 무용예술분야 관람 걸림돌

연도별 관람걸림돌 중 ‘관람경험 없음’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을 진행한 결과 연도별 관람 걸림돌에 대한 결과로는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을 진행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가 소폭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2022년까지 3개년을 분석함으로써 시계열 분석을 통해 시간흐름의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현황의 실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문화예술은 여가 소비 상품 중 하나로 인식되며, 문화적 소비를 필두로 창조 경제 시대를 견인할 핵심분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무용예술분야에서도 국민들이 모두 향유 가능하며, 문화적소비의 핵심분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용예술분야의 향후 무용예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의 관람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관람자와 미관람자의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무용예술분야의 관람 실태변화에 관한 분석들은 무용전공자의 관람 수요 유입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공분야에는 무용예술관람 실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의 실태·현황 및 만족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에 대한 관람실태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활용하여 2020년·2021년·2022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관람실태 및 현황, 관람 만족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람경험자의 관람지역 중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의 경우 점차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람경험자의 관람방법 중 ‘입장권 구입’, ‘무료행사’의 경우 2021년도가 가장 높았으며, ‘초대권으로 관람’의 경우 2020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람경험자의 관람시간 중 ‘주중 저녁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주말 낮 시간’, ‘주말 저녁 시간’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이 높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관람경험자의 정보출처 중 ‘안내문(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의 경우 점차 증가하였으며, ‘신문, 잡지’, ‘해당 안내 책자’, ‘동호인 모임’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람경험자의 보완점 중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관람경험자의 관람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의 만족도는 동일한 수치가 나타났다. 관람미경험자의 선택기준 중 ‘관람 비용의 적절성’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참가자(작가, 출연진)의 유명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접근성(가깝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미관람경험자의 관람 걸림돌 중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 만족제고를 위하여 관람 지역 및 관람 보완점에 대해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작품의 질과 관람지역에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관람 보완점 중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수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람지역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무용예술관람 만족은 세부 문화예술활동 요인에 대한 만족보다 관람 보완점, 관람지역 등 관람 현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람 보완점 중 작품의 질의 경우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들의 지원 정책 및 창작 공간 등 창작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용예술분야 관람을 국민들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접근이 용이한 관람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간이 공연장을 설치하여 지역 축제 형식의 관람공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 측면에서 직접관람 관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관객이 공연장을 외면하고 다른 요인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국민들의 전반적인 무용예술분야 관람 만족에 대하여 어떠한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학술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전반적인 미관람경험자의 관람 결림돌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우선순위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인 미관람경험자의 경우 관람 결림돌의 이유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관람자들의 ‘관람’의 측면이 아닌 ‘개인’의 측면으로 무용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는 ‘문화의 날’과 같은 ‘무용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 생활 속 무용예술의 향유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존재하는 문화의 날의 경우 영화관람, 공연관람, 문화재 관람, 스포츠 관람, 전시 관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문화의 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무용예술의 관람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용의 날’을 지정하여 다양한 할인혜택과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관람경험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들의 시선으로 예술은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어 관심으로 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용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무용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근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면 무용예술분야의 지속적 관객 확보에 근본적이며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하게 연구되지 못했던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 실태, 만족 등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무용예술분야에 초점을 두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예술분야의 관람경험자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미관람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관람경험자와 미관람경험자로 세

분화 하였지만 관람경험자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앞으로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 실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자의 관람 실태, 현황에만 국한된다면 무용예술계의 전망은 서서히 도태되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무용예술분야의 관람 유입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무용예술분야 관람 실태변화는 앞으로 무용예술산업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같은 통계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무용예술분야의 세부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민들의 각 연도별 무용예술분야의 관람현황을 실태 분석하였으며, 이에 관람 현황, 만족 등에 대한 단순한 비교·분석을 연구하였지만 향후 분석에는 종단적 연구의 주제를 확장시키는 것에 중점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기두, 이지희(2001). 문화예술 공연관람객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탐색적연구: 뮤지컬공연관람객을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30(4), 1143-1167.
- 김두이(2021). 문화예술향유 다양성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6(3), 21-52.
- 김미경(2020). '한국무용' 장르 연구의 시계열적 동향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2(2), 1-13.
- 류희진, 허식(2018). 시기별·활동별 문화저본에 따른 순수예술 관람 수요결정요인 분석. **문화정책 논총**, 32(2), 87-113
- 박주용, 오치욱, 김미연(202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융합 과학회지**, 11(6), 71-93.
- 박희영(2022). 공연예술의 지속적인 관람소비 결정요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4), 187-199.
- 설민신, 박두용, 이미정(2011).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한국 프로야구 관중 예측연구(2011-2015).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5, 375-387.
- 이아영, 김범수(2021). 문화예술 경험 요인이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 **예술경영연구**, 58, 89-119.
- 이용건, 주형철(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공연관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365-374.
- 오승욱, 한진욱(2023). 시계열 분석을 통한 프로야구리그 경기력 예측. **한국스포츠학회지**, 28(5), 65-75.
- 조선하(2006). 인문, 사회 과학편: 무용공연예술 관객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 **한국체육학회지**, 45(2), 449-459.
- 최순화(2021). 시니어의 문화예술 소비 다양성이 여가생활만족, 건강인식, 행복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24(3), 173-189.
- 최유정, 이윤석(2023). 형식교육 밖 미술교육 학습자의 만족도 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지**, 37(1), 31-51.
- 최재일, 정용락(2010). 시계열 분석에 의한 한국 프로축구 관중 수 예측(2009-2015). **한국사회체육 학회지**, 39, 921-928.
- 하지원(2023). 공연예술관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46, 105-125.
- 신은주(2011). 문화예술상품 소비자의 가치인식과 추구혜택의 개념구조 및 속성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정한결(2014). 무용공연 관람자의 가치인식과 관람추구혜택 및 무용공연선택속성의 구조모형분석.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강은(2022.12.29.).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영화’에 쏠림... 무용·클래식·문학·전통예술은 저조”.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9505278?OutUrl=naver>, 2024, 01. 24.>.
-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2023). <<https://policydb.kcti.re.kr/#/surveyNostalgiaText?bbstypecd=3003012>, 2024. 01. 20.>.

논문투고일 2024. 02. 07.

심사일 2024. 02. 27.

심사완료일 2024. 03. 07.

## An Analysis of the Actual Status of Dancing Arts

– Focusing on the Survey of National Culture and Arts Activities in 2020-2022 –

**Ha, Jiwon · Cha, Sujung**

Ph.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changes in the public's viewing conditions in the dance arts using SPSS 23 for data analysis, including chi-square tests and ANOVA. The aim is to determine if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variables over three years (2020, 2021, 2022).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prioritize policies addressing viewing area and supplementation to enhance satisfaction with viewing experiences in dance arts. Additionally, efforts should focus on overcoming obstacles for those who have not yet experienced dance arts, with the aim of fostering industry development and enhancing public enjoyment of dance arts in the future. In future analysis,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expanding the subject of longitudinal research that analyzes changes in the degree of influence between variables such as viewing status and satisfaction.

**Keywords:** National Culture and Arts Activity Survey(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National Accreditation Statistics(국가승인통계), Dance(무용), Viewing Status(관람실태), Time Series Analysis(시계열 분석)